

그룹사 허브 역할을 넘어 “본격적 e-Business 사업 전개”



▶ 대표이사 취임후 역점을 둔 사업은.

사명개칭, 비전 설정 등 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부장급 4명을 본부장으로 발탁했다. 이번 개편은 경력보다는 능력 위주로 이뤄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매출 강화를 위해 영업부문 상무이사를 새롭게 영입했다. 또한 과장급 이상의 프로필을 분석하고 사업전반의 체계를 구성한 후에 조직개편작업을 진행했다. 사람들을 우선 챙겼다는 애기다.

본사는 동양그룹의 허브역할을 넘어, B2B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계획이다. 현재 매출 중 65%가 동양그룹 내에서, 35%가 외부매출이다. 이를 2003년에는 역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매출 2천억원, 경상이익 1백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본부별 독립채산제를 도입해, SI업체의 맹점인 백화점식 사업을 지양하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사업본부제 실시는 대표이사 중심의 경영보다는 아래로부터의 경쟁력 향상이 목적이다.

▶ 올해 사업계획 및 매출을 들려달라.

지나해 매출 5백66억원, 순이익 25억원으로 5%대의 이익률을 유지하며 IMF에서 벗어나 안정된 성장을 이루었다. 지난해 12월에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95억원으로 늘리고 부채비율을 130%로 줄여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꾀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안정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The World Class Total Solution Provider'란 비전 달성을 위해 사업목표를 매출 7백50억원, 순이익 35억원을 목표로 하고 e-비즈니스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인력양성 및 솔루션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다.

올해의 기본 사업계획을 보면, 먼저 올해 주력할 사업분야로는 DW, ERP, KM분야의 특화시장에 집중하면서 그룹내 e비즈니스 추진을 배경으로 외부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NI 등 네트워크 사업을 본격화하고 기존의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금융시장의 정보화사업분야도 특화사업분야로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지나해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반을 닦아온 ERP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ERP 및 CRM, SCM, SEM 등의 확장

ERP 솔루션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사업을 추진한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적극적인 e비즈니스 추진을 최우선 순위로 하되, 국내는 물론 해외의 기술력 있는 우수 벤처업체와의 제휴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벤처 인큐베이팅 및 사업분사를 통해 본격적인 인터넷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안, ASP, 인터넷 방송, 디지털 콘텐츠, 정보중개(Informediary) 등의 신규사업 창출을 위해 계열사 및 국내외 전문업체와 세부적인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시스템통합 사업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2003년에는 e비즈니스사업 비중을 4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코스닥 등록에 관심이 많은데.

본사는 삼성증권을 주간사로 올해 상반기말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6월말이나 7월초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시 20%를 우리사주로 배분할 계획이다.

▶ SI업종 경쟁이 치열한데, 복안이 있는가.

지난 3월에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의 대규모 신정보시스템 구축 수주에서처럼 금융자율화로 금융상품 확대에 따른 금융솔루션 패키지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 수주로 해외 보험시장에서도 본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솔루션업체라는 것이 증명됐다. 국내와 보험환경이 유사한 동남아와 중국 등 해외 보험시장 공략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기관간의 영역이 없어지는 종합금융화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동안 강세를 보여온 보험, 증권, 종금 등 금융 SI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C/S, ALM, RM, CRM, MIS 등의 전문솔루션을 함께 묶어 토털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전문 금융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병무청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기관에 웹기반의 그룹웨어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어, 지식관리솔루션과 웹기반의 다양한 기술을 응용해 구현한 이번 시스템을 패키지화하여 공공분야 KM시장 공략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또 KM부분에서 인터넷 관련 솔루션 개발요인이 많다고 보고 이 분야 솔루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